

金배추·金무 이유 있었네...농축산물 값 절반이 유통비

aT KAMIS 집계 연도별 유통비용...2023년 기준 평균 49.2%

월동무 78%·양파 72%·고구마 70% 차지...유통구조 개선 필요

국내 농산물 소매가격의 절반 가량이 '유통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선도가 중요한 품목일수록 유통비 비중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양파와 배추, 무 등 일부 신선식품은 유통비 비중이 70%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공식된 '국내유통실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품목별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평균 49.2%를 기록했다.

유통비용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한 농가의 수익을 제외한 비용으로, 2023년에 소비자가 농산물을 1만원 구매하면 유통업체가 4920원을 벌었다는 뜻이다.

전체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도별로 aT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8년 39.8%, 2003년 43.7%, 2008년 44.5%, 2013년 45.0%, 2018년 46.7% 등이다.

신선도가 중요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유통비 비중이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배추와 무 등 엽근채

소류(64.3%), 조미채소류(60.8%), 화훼류(53.3%), 과채류(51.0%), 축산물(50.1%) 등의 유통비 비중이 절반을 넘겼고, 과일류(48.1%), 쌀 등 식량작물(35.9%)의 유통비 비중이 비교적 낮았다.

특히 일부 저장·보관 등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 보존이 중요한 품목의 경우 유통비 비중이 70% 이상에 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이 가장 유통비 비중이 큰 품목으로 꼽혔고, 쌀(26.4%) 등은 낮았다.

유통비 비중이 높은 품목의 경우 수개월에 걸쳐 키운 농가 등 생산자들이 유통업체보다 적게 버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상품의 등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점과 국내 유통 구조가 경매 중심이라는 점 등이 맞물려 생산자 소득을 낮추고 유통비 비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 비중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유통업체의 이윤 확대도 지목됐다. 유통업체 이윤률은 2023년 기준 14.6%로 5년 전(13.3%)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앞서 지난해 한국은행도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도매

■ 품목별 유통비 비중		〈단위: %〉	
엽근채소류	64.3	축산물	50.1
조미채소류	60.8	과일류	48.1
화훼류	53.3	식량작물	35.9
과채류	51.0	〈aT 제공〉	

가 상승폭보다 소매가 상승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유통비용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및 정가·수의매매 도입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를 통해 유통 독점을 예방하고, 다양한 생산·유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매 중심의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통 구조를 개선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유통비용을 줄여 공 들여 농산물을 키운 생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가격을 낮춰 물가 안정 효과까지 잡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및 정가·수의매매 도입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를 통해 유통 독점을 예방하고, 다양한 생산·유통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매 중심의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유통 구조를 전환하고, 거래 참여 자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케냐·우간다에 한국형 벼 재배단지 조성

농어촌공사·농식품부, K-라이스벨트 사업 착공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난 3일(현지 시각) 케냐 므웨아, 5일 우간다 토치 지역에서 각각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착공식을 열고 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은 아프리카 주요국에 벼 종자 생산단지 조성하고 함께 경지 정비, 관개 시설 확충, 농기계 보급,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현지 여건에 적합한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농업 부문 국제개발협력사업(ODA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현재 가나, 세네갈, 감비아, 카메룬, 케냐, 우간다, 기니 등 7개 국가에서 추진 중이다. 특히 케냐와 우간다는 이번 착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설 조성 공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공사에서는 경지 정리와 경작로 신설, 흙수로 현대화를 통해 아프리카 현지에 기계화 영농여건을 마련하고, 농업용수 이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의 기술 지원을 받은 일부 현지 농가에서 25%가량의 수확량 증가 및 품질 향상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인프라 조성이 현지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쌀 공급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케냐 므웨아 지역은 국가 전체 벼 재배면적의 30%,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간다 토치 지역 역시 2000가구 이상의 농가가 벼를 재배하고 있는 중대형 관개 계획지구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우, 중동 수출 길 열렸다...할랄 도축장 첫 등록 승인

2026년 9월 10일까지 승인 유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중동지역에서 할랄 도축장이 한우 수출 검역·위생 협상을 통해 지난 11일 UAE 정부로부터 최종 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aT는 이번 승인을 통해 앞으로는 냉장·냉동 형태의 할랄 한우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한우의 국제적 위상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 승인 효력은 오는 2026년 9월 10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올 상반기 구제역이 발생했던 일부 생산 지역 소재 한우는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aT는 2022년부터 현지 한우 수요조사와 제도 분석, 도축장 인증 절차 지원, 실사 대응 등의 노력을 지속했다. 이번에 등록 승인을 받는 등 성과는 중동지역에서의 한우 수출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와 aT 두바이 지사의 현지 시장 대응, UAE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주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중재 등이 맞물린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aT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성과를 정부·공공기관·민간 협력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자평했으며, 한우의 UAE 수출 가능성이 열린 만큼 향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문표 aT 사장은 "한우는 깊은 품미와 뛰어난



영양 성분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프리미엄 축산물"이라며 "중동으로의 한우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 K-푸드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UAE 한우 수출 협약기관인 농협과 한우수출협의회 회원사는 지난 6월 aT가 주관한 두바이 K-푸드 페어에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 MOU를

체결하며 수출 준비를 마쳤다. 이번 도축장 등록을 계기로 UAE 현지 대형 한국식품 수입 바이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추후 이후 초도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농식품부와 aT는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우리 한우를 '세계가 찾는 K-푸드'로 성장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식품부, 이동장터로 농촌 식품사막화 막는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찾아가는 '농촌형 이동장터'로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함평군에서 농촌형 이동장터 발대식이 개최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비롯해 1차 시범지구의 시장·군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농촌 식품 사막화 문제 현황 및 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

농촌형 이동장터는 지속적으로 농촌 소매점 휴·폐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농산물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물품을 판매하는 이동식 마트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영양 섭취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이동장터 사업 확대를 위해 표준화된 상품진열 및 운영방식 지도,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유출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도농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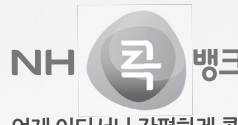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 농협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겐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쌍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서광주농협

지역대표 금융기관

